

# 국어 형용사 최상급 비교구문의 의미

정 인 수\*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최상급 비교급구문의 유형
- III. 최상급 구문의 의미
  - 1. 개방적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
  - 2. 제한적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
  - 3. 비대칭적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
  - 4. 단항적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
- IV. 마무리

## <요 약>

본 연구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고 정도부사 '가장'이 사용된 최상급 비교구문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용사 최상급 비교구문은 척도의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들은 셋 이상의 비교대상 즉, 지시집합이 필요하고, 비교어구가 지시집합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어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공통 점을 가진다. 그러나 개방적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과 단항적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척도의 모든 영역에 위치될 수 있다. 반면에 제한적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과 비대칭적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척도의 모든 영역에 위치될 수 없다. 즉, 제한적도 형용사인 '비다'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어떤 자질이 완전히 찰 수 없으므로 '차다'의 영역에 위치될 수 없으며, 비대칭적도 형용사인 '깨끗하다'

\* 영남대학교 한국학부 국어국문학과 강사

와 ‘더럽다’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각각 척도에서 ‘깨끗하다’의 영역 또는 ‘더럽다’의 영역에서만 위치된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Meaning of Korean Adjective  
Superlative Constructions

Chung In Soo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meaning of Korean adjective superlative constructions modified by the degree adverb “kajang”. Korean adjective superlative construction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which have the common characteristics: the reference set comprised of more than three referents, compared terms included in the set, no specified normal term. The compared terms and the normal terms on the open-scale adjective superlatives and unary-scale adjective superlatives are distributed on the whole scale. But the compared terms and the normal terms on the bounded-scale adjective superlatives and the asymmetric-scale adjective superlatives are not distributed on the whole scale. In other words, the compared term and the normal term in the superlative constructions of “pita(empty)”, a bounded-scale adjective cannot be located in the meaning realm of “chata(full)”. And the compared term and the normal term in the superlative constructions of “kkekuthata(clean)” and “terupta(dirty)”, asymmetric-scale adjectives, must be located only in the meaning realm of “kkekuthata(clean)” and “terupta(dirty)”.

## I. 머리말

최상급에 의한 비교와 관련된 구문을 최상급 구문이나 절대적 차등비교구문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본 연구에서는 최상급 비교구문이라 부르기로 하겠다.<sup>1)</sup> 이런 최상급 비교구문은 셋 이상의 비교대상들을 전제로 하는데, 최상급이란 주어진 범위(scale) 내에서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신순, 1991 : 37). 여기서 최상의 위치란 비교주체가 비교대상에 비해서 제일 높은 위치에서 최상이 되든, 제일 낮은 위치에서 최상이 되든, 둘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하길종, 1997 : 151). 이러한 최상의 위치를 나내는 최상급은 여러 표현에 의해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다.<sup>2)</sup> 이들 가운데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의 몇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ㄱ. 이 강이 동양에서 가장 길다.
- ㄴ. 동양에서 이 강만큼 긴 강은 없다.
- ㄷ. 동양에서 이 강이 어떤 강보다 더 길다.

(1) ㄱ~ㄷ은 모두 ‘이 강이 비교되는 대상을 중에서 정도성이 제일 큰, 즉 최상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들의 구조는 다른데, (1) ㄱ은 정도부사 ‘가장’과 형용사 서술어가 결합되어 있고, (1) ㄴ은 동등비교의 비교소 ‘만큼’과 존재 부정어 ‘없다’가 결합되어 있으며, (1) ㄷ은 차등비교의 비교소 ‘보다’와 형용사 서술어가 결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룰 대상으로는 (1) ㄱ~ㄷ 가운데 (1) ㄱ으로 한정하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1) 최상급에 의한 비교구문을 김규하(1995)와 하길종(1997)은 최상급 구문이라 부르고, 김정아(1998)는 절대적 차등비교구문이라 불렀다.

2) 김정대(1993 : 32)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하여 국어 최상급의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음을 보였다.

- 가. 에베레스트산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 높은 산이다.
- 나. 에베레스트산은 이 세상의 모든 산 중에서 {가장, 제일, ...} 높다.
- 다. 이 세상에서 에베레스트산{만큼, 처럼, ...} 높은 산은 없다.
- 라. 이 세상에서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높은 산은 없다.
- 마. 이 세상에서 에베레스트산은 다른 {어떤, 어느, ...} 산보다 더 높다.
- 바. 에베레스트산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어느, ...} 산보다 더 높다.

최상급 비교구문은 넓게 보면 차등비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문장의 구조상 (1)느과 느은 각각 동등비교구문이나 차등비교구문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ㄱ과 같은 유형의 최상급 비교구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들의 의미를 살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어 최상급 비교구문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정대(1993), 김규하(1995), 하길종(1997) 그리고 김정아(1998)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김정대(1993)는 최상급 비교구문의 통사적 구조를 논의하였다. 김규하(1995)는 우리말의 비교문이 변천해온 모습과 그러한 현상을 지배하는 규칙의 설정과 비교 서술어들의 의미 변화의 모습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김정아(1998)는 절대적 차등비교구문(최상급 비교구문)의 의미가 소속집단 중에서 최고성을 나타낸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길종(1997)은 현대 국어의 최상급 비교구문을 주된 대상을 삼았으나, 모든 최상급 비교구문의 의미를 <비교되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보았다. 김정아(1998)의 논의나 하길종(1997)의 논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용사 비교구문들의 의미는 형용사의 어휘적 의미 특성에 따라 서로 의미적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II. 최상급 비교구문의 유형

김승곤(987 : 217)은 최상급을 상대 견줄에 의한 최상급과 절대 최상급으로 나누어, 다음의 (2)ㄱ을 상대 견줄에 의한 최상급으로 보았고 (2)ㄴ을 절대 최상급으로 보았다.

- (2) ㄱ. 철수는 그들 중에서 가장 크다.
- ㄴ. 그녀는 가장 불행하다.

(2)ㄱ과 (2)ㄴ의 차이는 ‘그들 중에서’라는 비교범위, 즉 지시집합이 명시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sup>3)</sup> 박신순(1991 : 37)은 범위가 표면

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담화나 문맥에서 범위가 정해져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통된 범위가 인식된 경우라고 하였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박신순(1991)의 논의에 따라 (2)ㄴ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인식된 공통 범위가 생략되었다고 보고,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 (2)ㄱ과 같은 최상급 비교구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겠다.

본 연구는 (2)ㄱ과 같이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고, 비교범위, 즉 지시집합이 명시되어있으며, 정도부사인 ‘가장’이 사용된 최상급 비교구문의 유형을 대상으로 하되, 이런 유형의 최상급 비교구문을 정인수(1992,571-575)에서 논의된 척도의 유형에 따라 개방척도를 이루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 제한척도를 이루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 비대칭척도를 이루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 그리고 단항척도를 이루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의 네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동일한 구조를 가진 최상급 비교구문들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취하는 척도가 다르면, 그것들 사이의 의미적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III. 최상급 구문의 의미

최상급 비교구문을 하길종(1997)은 정도차등 비교구문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하였고, 김정아(1998)는 차등비교구문의 하위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최상급 비교구문이 차등비교구문과 같이 그 구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든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기준어구와 기준어구에 의하여 비교되어지는 비교어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3절에서는 최

3) 김승곤(1987 : 217)은 「가장」이 절대 최상급에 쓰이는 것은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수식할 때 한정되고, 객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말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2)ㄴ과 달리 ‘그녀는 가장 크다’를 비문으로 보았다.

4) 박신순(1991 : 37)은 다음의 예문 b는 질문 a에 범위가 주어진 경우, 즉 담화상에서 ‘우리 반’이라는 범위가 주어졌으므로 b에서 그 범위가 생략된다고 하였다.

a.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b. 영희가 제일 예뻐.

상급 비교구문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에 관련된 지시집합의 범위, 지시집합 속에 기준어구의 포함 유무, 기준어구의 설정 그리고 척도상에 위치될 수 있는 비교어구와 기준어구의 영역<sup>5)</sup>에 대해서 논의될 것이다.

## 1. 개방척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

개방척도를 이루는 형용사로 ‘크다-작다’, ‘넓다-좁다’, ‘길다-짧다’, ‘깊다-얕다’, ‘무겁다-가볍다’ 등을 들 수 있는데, 다음의 예문 (3)ㄱ과 ㄴ은 각각 이것들 가운데 ‘크다’와 ‘작다’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이다.

- (3) ㄱ. 영수는 우리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  
     ㄴ. 철수는 우리 중에서 키가 가장 작다.

(3)ㄱ과 ㄴ에서 각각 ‘영수’와 ‘철수’는 비교어구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3)ㄱ과 ㄴ에서 ‘우리’가 기준어구인지 비교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지시물의 집합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길종(1997)에서 볼 수 있다.

- (4) ㄱ. NP1은 NP2 중에서 최고이다.  
     ㄴ. NP1은 NP2 중에서 최하이다.

하길종(1997 : 139)에서 제시된 (4)ㄱ과 ㄴ은 형용사를 서술어로 갖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면 (3)ㄱ이나 ㄴ과 차이가 없는 최상급 비교구문이다. 하길종(1997)은 (4)ㄱ과 ㄴ에서 NP1은 비교주체이고 NP2는 비교대상이라고 하였다.<sup>6)</sup> 여기서 비교대상은 본 연구의 기준어구에 해당된다. 그러면 하길종

5) 어떤 형용사는 구문의 유형을 다르게 하거나, 지시집합과 구문을 함께 다르게 했을 때, 그 형용사가 작용할 수 있는 척도상의 영역이 달라지기도 한다. 어떤 형용사가 작용할 수 있는 척도상의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척도상에 위치되는 비교구와 기준어구의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6) 김정대(1993)는 ‘비교주체’ 대신에 ‘비교어구’란 용어를 사용하고, ‘비교대상’ 대신에 ‘기준어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대(1993)의 용어를 사용하기

(1997)의 논의처럼 (4)의 NP2가 비교대상, 즉 기준여구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NP2의 범위, 그리고 NP1과 NP2의 관계 즉, NP1이 NP2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 (5) ㄱ. ?영수는 우리 둘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  
ㄴ. ?철수는 우리 둘 중에서 키가 가장 작다.
- (6) ㄱ. 영수는 우리 셋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  
ㄴ. 철수는 우리 셋 중에서 키가 가장 작다.

위의 (5) ㄱ과 ㄴ은 NP2가 두 사람인 경우이고, (6) ㄱ과 ㄴ은 NP2가 세 사람인 경우이다. 여기서 (5) ㄱ과 ㄴ은 자연스럽지 못하나 (6) ㄱ과 ㄴ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NP2의 범위를 네 사람, 열 사람, 백 사람..... 등으로 대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해진다. 이런 사실에서 (3) ㄱ과 ㄴ의 최상급 비교구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NP2가 최소한 세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7) ㄱ. ?우리 학교 농구 선수인 영수는 우리 학교 배구 선수들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  
ㄴ. ?우리 학교 농구 선수인 철수는 우리 학교 배구 선수들 중에서 키가 가장 작다.
- (8) ㄱ. 우리 학교 농구 선수인 영수는 우리 학교 농구 선수와 배구 선수들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  
ㄴ. 우리 학교 농구 선수인 철수는 우리 학교 농구 선수와 배구 선수들 중에서 키가 가장 작다.

위의 (7) ㄱ과 ㄴ 그리고 (8) ㄱ과 ㄴ은 (3) ㄱ과 ㄴ처럼 최상급 비교구문인데, (8) ㄱ과 ㄴ은 각각 NP1인 '영수'나 '철수'가 NP2인 '우리 학교 배구 선수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고, (8) ㄱ과 ㄴ은 각각 NP1인 '영수'나 '철수'가 NP2인 '우리 학교 농구 선수와 배구 선수들'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7) ㄱ과 ㄴ은 (3) ㄱ이나 ㄴ과 달리 자연스럽지 않지만, (8) ㄱ과 ㄴ은 (3) ㄱ이

'기준여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대(1993)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나 ㄴ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로써 (3)ㄱ과 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NP<sub>1</sub>인 '영수'나 '철수'가 NP<sub>2</sub>인 '우리'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ㄱ과 ㄴ, (6)ㄱ과 ㄴ 그리고 (8)ㄱ과 ㄴ을 통하여 NP<sub>2</sub>의 범위는 세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하고 NP<sub>1</sub>이 NP<sub>2</sub>에 포함되므로 (3)ㄱ과 ㄴ에서 NP<sub>2</sub>는 '우리'이며, '우리'라는 범위 속에 NP<sub>1</sub>인 '영수'나 '철수'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3)ㄱ과 ㄴ의 NP<sub>2</sub>인 '우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다.

- (9) NP<sub>1</sub> : {영수}  
 NP<sub>2</sub> : {영수, 철수, 명수}

김정아(1998)에 의하면 절대적 차등비교구문(최상급 비교구문)은 여러 번의 차등비교결과를 종합하여 최고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만일 (9)의 NP<sub>2</sub>가 기준여구라고 한다면 (3)ㄱ에서 '영수의 키'의 최고성은 '영수의 키' > '영수의 키', '영수의 키' > '철수의 키' 그리고 '영수의 키' > '명수의 키'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ㄴ에서 '철수의 키'의 최고성은 '철수의 키' < '철수의 키', '철수의 키' < '영수의 키' 그리고 '철수의 키' < '명수의 키'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3)ㄱ에서 '영수의 키'의 최고성을 확인하는데, NP<sub>1</sub>의 '영수의 키'와 NP<sub>2</sub>의 '영수의 키'를 비교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NP<sub>1</sub>의 '영수'와 NP<sub>2</sub> 속의 '영수'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NP<sub>1</sub>의 '영수의 키'와 NP<sub>2</sub>의 '영수의 키'가 항상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영수의 키' > '영수의 키'와 같은 등식은 성립되지도 않는다. 또한 (3)ㄴ에서 '철수의 키'의 최고성을 확인하는데, NP<sub>1</sub>의 '철수의 키'와 NP<sub>2</sub>의 '철수의 키'를 비교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NP<sub>1</sub>의 '철수'와 NP<sub>2</sub> 속의 '철수'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NP<sub>1</sub>의 '철수의 키'와 NP<sub>2</sub>의 '철수의 키'가 항상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철수의 키' < '철수의 키'와 같은 등식은 성립되지도 않는다.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볼 때, 하길종(1997)의 논의와 달리 (3)ㄱ과 ㄴ에서 '우리'나 (4)ㄱ과 ㄴ에서 NP<sub>2</sub>는 (3)이나 (4)과 같은 최상급

비교구문에서 기준어구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3)ㄱ과 ㄴ에서 '우리'나 (4)ㄱ과 ㄴ에서 NP<sub>2</sub>는 최상급 비교구문에서 비교할 대상들의 범위, 즉 비교어구에 해당하는 대상물과 기준어구에 해당하는 대상물을 합한 지시집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3)ㄱ과 ㄴ에서 '우리'를 비교할 대상들의 범위, 즉 지시집합이라고 본다면, (3)ㄱ과 ㄴ과 같은 최상급 비교구문은 기준어구가 없게 된다. 최상급 비교구문은 비교구문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명시적이든 비명시적이든 기준어구가 필요함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 (3)ㄱ과 ㄴ과 같은 최상급 비교구문에서 무엇을 기준어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3)ㄱ에서 '영수의 키'의 최고성은 (9)NP<sub>2</sub>의 집합에서 '영수'를 제외한 '철수, 명수'와의 비교, 즉 '영수의 키'>'철수의 키'와 '영수의 키'>'명수의 키'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3)ㄴ에서 '철수의 키'의 최고성은 (9)NP<sub>2</sub>의 집합에서 '철수'를 제외한 '영수, 명수'와의 비교, 즉 '철수의 키'<'영수의 키'와 '철수의 키'<'명수의 키'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9)NP<sub>2</sub>의 집합에서 '영수'를 제외한 {철수, 명수}가 (3)ㄱ의 기준어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9)NP<sub>2</sub>의 집합에서 '철수'를 제외한 {영수, 명수}가 (7)ㄴ의 기준어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3)ㄱ과 ㄴ에서 기준어구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지시집합인 '우리'에서 비교어구를 제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3)ㄱ에서 비교어구는 '영수'이고 기준어구는 '우리'에서 '영수'를 제외한 '우리'가 되고, (3)ㄴ에서 비교어구는 '철수'이고 기준어구는 '우리'에서 '철수'를 제외한 '우리'가 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비교어구와 기준어구가 '크다'와 '작다'가 이루는 척도상에 위치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 (10) ㄱ. 우리 반에서 영수, 철수, 명수는 키가 큰데, 영수는 세 사람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
  - ㄴ. 우리 반에서 영수, 철수, 명수는 키가 작은데, 철수는 세 사람 중에서 키가 가장 작다.
- (11) ㄱ. 우리 반에서 영수, 철수, 명수는 키가 작지만, 영수는 세 사

- 람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  
 ㄴ. 우리 반에서 영수, 철수, 명수는 키가 크지만, 철수는 세 사람 중에서 키가 가장 작다.

위의 (10)과 (11)은 각각 최상급 비교구문과 지시집합이 다르고 최상급 비교구문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가 함께 제시된 원구문(positive sentence)과 최상급 비교구문을 결합한 것이다.<sup>7)</sup> (10)ㄱ은 원구문의 서술어가 '크다'이고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도 '크다'이며, (10)ㄴ은 원구문의 서술어가 '작다'이고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가 '작다'이다. 반면에 (11)ㄱ은 원구문의 서술어가 '작다'이고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는 '크다'이며, 그리고 (11)ㄴ은 원구문의 서술어가 '크다'이고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가 '작다'이다. 즉, (10)은 원구문과 최상급 구문의 서술어가 같지만 (11)은 원구문의 서술어와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3)ㄱ의 비교어구인 '영수'와 기준어구인 '철수, 명수'가 '크다'와 '작다'가 이루는 척도에서 높은 값의 할당, 즉 '크다'의 영역에 위치되고, (3)ㄴ의 비교어구인 '철수'와 기준어구인 '영수, 명수'가 '크다'와 '작다'가 이루는 척도에서 척도에서 낮은 값의 할당, 즉 '작다'의 영역에 위치되다면, 또한 이렇게 할당된 값이 절대적이라면, (11)ㄱ과 ㄴ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11)ㄱ과 ㄴ은 (10)ㄱ과 ㄴ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교어구와 기준어구가 속하는 지시집합에 따라서 그 비교어구나 기준어구가 척도의 '크다'의 영역에 위치될 수도 있고 '작다'의 영역에도 위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3)ㄱ과 ㄴ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크다'와 '작다'가 이루는 척도의 전 영역에 위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개방척도 형용사인 '크다'와 '작다'를 서술어로 하는

7) (10)과 (11)에서 원구문의 지시집합은 '우리 반'이고 최상급 비교구문의 지시집합은 '세 사람'이다. 원구문의 비교어구인 '영수, 철수, 명수'는 최상급 비교구문의 지시집합에 해당한다. 최상급 비교구문의 지시집합은 그 구문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에 해당하는 대상물들의 합이므로, 원구문의 비교어구인 '영수, 철수, 명수'에 최상급 비교구문의 비교어구, 즉 '영수'와 기준어구, 즉 '철수, 명수'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그과 뉘에서 지시집합은 세 사람 이상이어야 하고, 비교어구는 지시집합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어구는 지시집합에서 비교어구가 제외되며,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크다’와 ‘작다’가 정의하는 척도에서 모든 영역에 위치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3)은 대략적으로 ‘세 사람 이상이 모인 우리 가운데, 영수가 나머지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크다’는 의미를 가지며, (7)은 대략적으로 ‘세 사람 이상이 모인 우리 가운데, 영수가 나머지 사람들보다 키가 더 작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들을 형식화 하면 (12)그과 뉘처럼 될 것이고, 일반화하면 (13)그과 뉘처럼 될 것이다.

- (12) ㄱ. [영수 $\in$ 우리  $\wedge$  (우리-영수) $\in$ 우리]  $\wedge$  [영수의 키>(우리-영수)의 키] (단, 우리 >두 사람)
  - ㄴ. [철수 $\in$ 우리  $\wedge$  (우리-철수) $\in$ 우리]  $\wedge$  [영수의 키<(우리-철수)의 키] (단, 우리 >두 사람)
- (13) ㄱ. [X $\in$ C  $\wedge$  Y $\in$ C]  $\wedge$  [XMD>YMD] (C>2E)<sup>9</sup>
  - ㄴ. [X $\in$ C  $\wedge$  Y $\in$ C]  $\wedge$  [XMD<YMD] (C>2E)

## 2. 제한척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

제한척도를 이루는 형용사로 ‘비다’를 들 수 있는데, 다음의 예문 (14)는 이것을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이다.

- (14) 이 병은 이 상자에 있는 병들 중에서 물이 가장 비었다.

3.1에서 개방척도 형용사인 ‘크다’와 ‘작다’를 서술어로 하는 (3)그과 뉘에

- 8) [우리-영수]에서 ‘-’는 지시집합인 ‘우리’에서 비교어구인 ‘영수’를 제외한다는 기호이다.
- 9) 본 연구에서 X는 비교어구를 나타내고, Y는 기준어구를 나타내며, C는 지시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E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대상을 대신하는 기호로 사용하였다. 또한 XMD에서 MD는 비교되는 차원, 즉 ‘키’, ‘길이’, ‘무게’ 등에서 X에 부여되는 값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였고, YMD에서 MD는 비교되는 차원, 즉 ‘키’, ‘길이’, ‘무게’ 등에서 Y에 부여되는 값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였다.

서의 지시집합은 세 사람 이상이어야 하고, 비교어구가 지시집합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어구는 지시집합에서 비교어구가 제외된 것임을 보았다. 그러면 이런 점에서 제한척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인 (14)도 개방척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 보기로 하겠다.

(15) ?이 병은 두 개의 병 중에서 물이 가장 비었다.

(16) 이 병은 세 개의 병 중에서 물이 가장 비었다.

(15)는 비교할 대상들의 범위, 즉 지시집합을 두 개의 병으로 삼은 경우이고, (16)은 비교할 대상들의 범위, 즉 지시집합을 세 개의 병으로 삼은 경우이다. 여기서 (15)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16)이 자연스러운 것은 제한척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도 개방척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과 같이 비교할 대상들의 범위, 즉 지시집합이 셋 이상의 대상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의 지시집합을 네 개의 병, 다섯 개의 병.....으로 삼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14)의 최상급 비교구문의 지시집합인 ‘여기에 있는 병들’은 세 개 이상의 병들이라야 함을 알 수 있다.

(17) ?이 상자에 있는 이 병은 저 상자 있는 모든 병 중에서 물이 가장 비었다.

(18) 이 상자에 있는 이 병은 이 상자와 저 상자에 있는 모든 병 중에서 물이 가장 비었다.

위의 (17)은 비교어구인 ‘이 상자’가 지시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고, (18)은 비교어구인 ‘이 상자’가 지시집합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17)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18)이 자연스러운 것은 제한척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도 개방척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과 마찬가지로 비교어구가 지시집합 속에 포함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4)의 비교어구인 ‘이 병’은 지시집합인 ‘여기에 있는 병들’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다’를 서술어로 하는 어떤 최상급 비교구문의 지시집합 범위를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기로 하겠다.

- (19) 비교어구 : {A병}  
지시집합 : {A병, B병, C병}

만일 (19)의 지시집합을 기준어구라 한다면, A병에 담긴 내용물의 최고성은 ‘A병의 내용물<A병의 내용물’, ‘A병의 내용물<B병의 내용물’ 그리고 ‘A병의 내용물<C병의 내용물’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A병에 담긴 내용물의 최고성을 확인하는데, 비교어구인 ‘A병’과 지시집합 속의 ‘A병’을 비교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어구인 ‘A병의 내용물’과 지시집합 속의 ‘A병의 내용물’은 동일하게 비어 있기 때문에, ‘A병의 내용물<A병의 내용물’과 같은 등식은 성립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14)에서 ‘여기애 있는 병’은 지시집합일 뿐 기준어구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기준어구는 ‘이 상자에 있는 병들’에서 ‘비교어구’인 ‘이 병’이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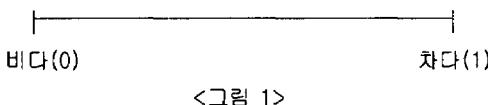
(14)에서 비교어구는 ‘이 병’이고 기준어구는 지시집합인 ‘이 상자 있는 병들’에서 ‘비교어구’인 ‘이 병’이 제외된 것임을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비교어구와 기준어구가 ‘비다’와 ‘차다’<sup>10)</sup>가 이루는 척도에서 위치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 (20) ㄱ. ?이 창고에서 이 상자에 있는 병들은 물이 비었는데, 이 병은 이 상자에 있는 병들 중에 물이 가장 비었다.  
ㄴ. ?이 창고에서 이 상자에 있는 병들은 물이 쌓지만, 이 병은 이 상자에 있는 병들 중에 물이 가장 비었다.

위의 (20)ㄱ과 ㄴ은 (14)의 최상급 비교구문에 이것과 지시집합의 범위가 다르고 (14)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가 함께 제시된 원구문을 결합한 것이다.

10) ‘차다’가 사용되는 분포가 ‘비다’와 동일하고, ‘차다’와 ‘비다’는 반의어를 이루며 이 것들이 하나의 척도를 정의한다. 그렇지만 국어 사전에서 ‘차다’는 자동사로 분류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겠다.

(20) 그은 원구문의 서술어가 ‘비다’이고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도 ‘비다’이지만, (20)ㄴ은 원구문의 서술어가 ‘차다’이고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가 ‘비다’이다. 그렇지만 (20)ㄱ과 ㄴ은 3.1에서 예시된 (10)이나 (11)과 달리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다.



위의 <그림 1>은 ‘비다’와 ‘차다’에 의해서 이루어진 척도<sup>11)</sup>인데, (20)ㄱ의 원구문인 ‘이 창고에서 이 상자에 있는 병들은 물이 비었는데’는 ‘이 상자에 있는 병들의 물이 빈 정도’가 위 그림의 왼쪽의 끝, 즉 0(zero)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척도에서 0(zero)을 가리키는 ‘이 상자에 있는 모든 병들’을 두고, 즉 물이 빈 정도가 같은 이 상자에 있는 병들을 두고 (14)와 같은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은 모순이 되므로 (20)ㄱ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20)ㄴ의 원구문인 ‘이 창고에서 이 상자에 있는 병들은 물이 채지만’은 ‘이 상자에 있는 모든 병들의 물이 찬 정도’가 위 그림의 오른쪽의 끝, 즉 1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척도에서 1을 가리키는 ‘이 상자에 있는 병들’을 두고, 물이 찬 정도가 같은 이 상자에 있는 병들을 두고 물이 빈 정도를 비교하는 (14)와 같은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은 모순이 되므로 (20)ㄴ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된다. (10)과 (11)을 통해서 (3)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크다’와 ‘작다’가 이루는 척도에 위치될 수 있는 영역을 알 수 있으나, (20)ㄱ과 ㄴ을 통해서 (14)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비다’와 ‘차다’가 이루는 척도에 위치

11) ‘차다’는 어떤 용기, 즉 ‘병’에 어떤 자질, ‘물’이 더 들어 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비다’는 어떤 용기, 즉 ‘병’에 어떤 자질, 즉 ‘물’이 더 들어 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차다’와 ‘비다’는 각각 이것들이 이루는 척도의 양 끝에 위치하게 된다. ‘차다’는 어떤 자질이 더 들어 갈 수 없는 경우이므로 1의 값을 주고, ‘비다’는 어떤 자질이 완전히 없는 경우이므로 0(zero)의 값을 주어 ‘차다’와 ‘비다’의 척도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이 된다.

될 수 있는 영역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20)과 (10)이나 (11)과 달리 모두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3.1에서 언급하였듯이 김정아(1998)는 최상급 비교구문의 최고성은 여러 번의 차등비교결과를 종합하여 확인하게 된다고 하였다<sup>12)</sup>. 이것은 (14)의 이 병의 물이 빈 정도의 최고성을 이 상자에 있는 병들에서 이병을 제외한 나머지 병과의 차등비교에서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4)는 ‘이 병은 이 상자에서 이 병을 제외한 나머지 병들보다 물이 더 비었다’와 같은 차등비교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비다’의 차등비교구문에 대한 정인수(1998)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차등비교구문은 어떤 자질(물)이 어느 정도 없는 가를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어구나 기준어구 가운데 어느 하나도 1의 값, 즉 찰 수 없지만, 기준어구인 ‘이 병’은 0(zero)의 값, 즉 완전히 빌 수 있다. 따라서 (14)의 비교어구인 ‘이 병’은 위의 <그림 1>에서 0(zero)이거나 0(zero) 보다 큰 영역으로부터 1이하인 영역 사이에 위치될 수 있고, 기준어구인 ‘이 상자에서 이 병을 제외 한 것’은 1보다 크고 0(zero)보다 작은 영역에 위치될 수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제한적도 형용사인 ‘비다’를 서술어로 하는 (14)에서 지시집합은 세 개 이상의 병들이어야 하고, 비교어구는 지시집합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어구는 지시집합에서 비교어구가 제외되며, 비교어구나 기준어구 가운데 어느 하나도 1의 값, 즉 찰 수 없지만, 기준어구인 ‘이 병’은 0(zero)의 값, 즉 완전히 빌 수 있음을 보았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14)는 대략 ‘세 개 이상의 병들이 있는 이 상자에서, 이 병이 나머지 병보다 물이 더 비었는데, 이 병은 물이 완전히 찬 상태가 아니고, 나머지 병은 물이 완전히 찬 상태도 빈 상태도 아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형식화 하면 (21)과 같아질 것이고, 일반화하면 (22)와 같아질 것이다.

12) 최상급 비교구문의 최고성이 여러 번의 차등비교결과를 종합했다는 것은 최상급 비교구문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가 척도에서 위치되는 각각의 영역이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가 척도에서 위치되는 각각의 영역과 같다라는 것이다.

- $\wedge [0 \leq 이\text{ 병} \text{에서 물의 빈 정도} < 1 \wedge 0 < (\text{세 개의 병}-이\text{ 병}) \text{에 서 물의 빈 정도} < 1]$  (단, 이 상자) 두 개의 병)
- (22)  $[X \in C \wedge Y \in C] \wedge [XMD > YMD] \wedge [0 \leq XMD < 1 \wedge 0 < YMD < 1] (C > 2E)$

### 3. 비대칭척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

비대칭척도를 이루는 형용사로 ‘깨끗하다-더럽다’, ‘조용하다-시끄럽다’, ‘순수하다-불순하다’ 등을 들 수 있는데, 다음의 예문 (23)은 이것들 가운데 ‘깨끗하다’와 ‘더럽다’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이다.

- (23) ㄱ. 이 교실은 우리 학교의 교실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  
 ㄴ. 이 교실은 우리 학교의 교실 중에서 가장 더럽다.

먼저 3.1과 3.2에서 논의된 최상급 비교구문과 마찬가지로 (23) ㄱ과 ㄴ도 지시집합은 세 사람 이상이어야 하고, 비교어구는 지시집합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어구는 지시집합에서 비교어구가 제외된 것인지를 다음의 예문들을 통하여 먼저 살펴 보기로 하겠다.

- (24) ㄱ. ?이 교실은 두 개의 교실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  
 ㄴ. ?이 교실은 두 개의 교실 중에서 가장 더럽다.
- (25) ㄱ. 이 교실은 세 개의 교실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  
 ㄴ. 이 교실은 세 개의 교실 중에서 가장 더럽다.
- (26) ㄱ. ?우리 학교의 이교실은 이웃 학교의 교실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  
 ㄴ. ?우리 학교의 이교실은 이웃 학교의 교실 중에서 가장 더럽다.
- (27) ㄱ. 우리 학교의 이교실은 우리 학교와 이웃 학교의 교실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  
 ㄴ. 우리 학교의 이교실은 우리 학교와 이웃 학교의 교실 중에서 가장 더럽다.

위의 (24) ㄱ과 ㄴ은 비교할 대상들의 범위, 즉 지시집합을 두 개의 교실로 삼은 경우이고, (25) ㄱ과 ㄴ은 비교할 대상들의 범위, 즉 지시집합을 세 개

13) 비교구문에 사용된 ‘길다’와 ‘짧다’는 비교의 차원을 나타내는 명사인 ‘길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구문에 사용된 ‘차다’와 ‘비다’는 비교의 차원을 나타내는 적절한 명사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빈 정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위의 (24)과 같은 비교할 대상들의 범위, 즉 지시집합을 두 개의 교실로 삼은 경우이고, (25)과 같은 비교할 대상들의 범위, 즉 지시집합을 세 개의 병으로 삼은 경우이다. 여기서 (24)과 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25)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은 비대칭적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도 개방적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과 같이 비교할 대상들의 범위, 즉 지시집합이 셋 이상의 대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3)과 같이 최상급 비교구문의 지시집합인 ‘여기에 있는 교실들’은 세 개 이상의 교실이라야 함을 알 수 있다.

(26)과 같은 비교어구인 ‘이 학교’가 지시집합인 ‘이 옷 학교 교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고, (27)과 같은 비교어구인 ‘이 교실’이 지시집합인 ‘우리 학교와 이 옷 학교의 교실’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26)과 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27)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은 비대칭적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도 개방적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과 마찬가지로 비교어구가 지시집합 속에 포함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3)의 비교어구인 ‘이 교실’은 지시집합인 ‘우리 학교의 교실’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3)의 비교어구인 ‘이 교실’은 지시집합인 ‘우리 학교의 교실’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다. 만일 ‘우리 학교의 교실’이 지시집합이 아니고 기준어구라 한다면, 이 교실의 깨끗함에 대한 최고성을 확인하는데, 비교어구인 ‘이 학교’와 지시집합 속의 ‘이 교실’를 비교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어구인 ‘이 교실’과 지시집합 속의 ‘이 교실’은 깨끗한 정도가 같기 때문에, ‘이 교실의 깨끗함>이 교실의 깨끗함’과 같은 등식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 교실의 더러움함에 대한 최고성을 확인하는데, 비교어구인 ‘이 교실’과 지시집합 속의 ‘이 교실’을 비교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어구인 ‘이 교실’과 지시집합 속의 ‘이 교실’은 더러운 정도가 같기 때문에, ‘이 교실의 더러움>이 교실의 더러움’과 같은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23)의 ‘우리 학교의 교실’은 지시집합일 뿐 기준어구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기준어구는 ‘우리 학교의 교실’에서 ‘비교어구’인 ‘이 교실’

이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3)에서 비교어구는 ‘이 교실’이고 기준어구는 지시집합인 ‘우리 학교의 교실’에서 비교어구인 ‘이 교실’이 제외된 것임을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비교어구와 기준어구가 ‘깨끗하다’와 ‘더럽다’가 이루는 척도에서 위치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 (28) ㄱ. 우리 학교에서 A, B, C의 세 교실은 모두 깨끗한데, A교실이 세 교실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
- ㄴ. 우리 학교에서 A, B, C의 세 교실은 모두 더러운데, A교실이 세 교실 중에서 가장 더럽다.
- (29) ㄱ. ?우리 학교에서 A, B, C의 세 교실은 모두 더럽지만, A교실이 세 교실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
- ㄴ. ?우리 학교에서 A, B, C의 세 교실은 모두 깨끗하지만, A교실이 세 교실 중에서 가장 더럽다.

위의 (28)과 (29)는 지시집합이 다른 원구문과 최상급 비교구문 결합한 것이다. (28) ㄱ은 원구문의 서술어가 ‘깨끗하다’이고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도 ‘깨끗하다’이며, 그리고 (28) ㄴ은 원구문의 서술어가 ‘더럽다’이고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가 ‘더럽다’이다. 반면에 (29) ㄱ은 원구문의 서술어가 ‘더럽다’이고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도 ‘깨끗하다’이며, 그리고 (29) ㄴ은 원구문의 서술어와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가 같지 않다. 그런데 (28) ㄱ과 ㄴ은 3.1의 (10) ㄱ과 ㄴ과 같이 자연스럽지만, (29) ㄱ과 ㄴ은 (11) ㄱ과 ㄴ과 달리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다.

‘깨끗하다’와 ‘더럽다’로 판단하는 그 기준은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이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절대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 사이에서 비교가 가능하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 사이에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8) ㄱ이 자연스러운 것은 A교실, B교실, 그리고 C교실이 모두 깨끗하며, 이런 깨끗한 교실 사이에 최상급 비교구문을 사용

했기 때문이고, (28)ㄴ이 자연스러운 것은 A교실, B교실, 그리고 C교실이 모두 더러우며, 이런 더러운 교실 사이에 최상급 비교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29)ㄱ이 자연스럽지 않는 것은 A교실, B교실, 그리고 C교실이 모두 더러운데, 이런 더러운 교실을 두고 깨끗함을 문제 삼는 최상급 비교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이고, (29)ㄴ이 자연스럽지 않는 것은 A교실, B교실, 그리고 C교실이 모두 깨끗한데, 이런 깨끗한 교실을 두고 더러움을 문제 삼는 최상급 비교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23)ㄱ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깨끗하다’와 ‘더럽다’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음의 척도<sup>14)</sup>에서 ‘깨끗하다’의 영역에 위치될 수 있고, (23)ㄴ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깨끗하다’와 ‘더럽다’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음의 척도에서 ‘더럽다’의 영역에 위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23)ㄱ의 비교어구인 ‘이 교실’은 ‘우리 학교 교실에서 이 교실을 제외 한 것’보다 깨끗함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즉 더러움의 자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림 2>에서 0(zero)이거나 0(zero)보다 크고 기준보다 작은 영역 사이에 위치될 수 있고, 기준어구인 ‘우리 학교 교실에서 이 교실을 제외 한 것’은 ‘이 교실’보다 깨끗함의 정도가 작기 때문에 기준보다 작고 0(zero)보다 큰 영역에 위치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23)ㄴ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더럽다’의 영역에 위치될 수 있으므로 <그림 2>에서 볼 때 기준보다 큰 영역에 위치될 수 있다고 하겠다.

14) ‘깨끗하다’는 더러움의 자질이 기준보다 적은 상태이고 ‘더럽다’는 더러움의 자질이 기준보다 많은 상태이다. 어떤 것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 더러움의 자질이 완전히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것이 ‘더럽다’라고 할 때는 항상 더 큰 정도의 더러움을 생각할 수 있다. 더러움의 자질이 완전히 없는 경우에 0(zero)값을 주어 ‘깨끗하다’와 ‘더럽다’로 이루어진 척도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이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비대칭척도 형용사인 ‘깨끗하다’와 ‘더럽다’를 서술어로 하는 (23)ㄱ과 ㄴ에서 지시집합은 세 개 이상의 교실이어야 하고, 비교어구는 지시집합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어구는 지시집합에서 비교어구가 제외되며, (23)ㄱ에서 ‘이 교실’은 ‘깨끗하다’와 ‘더럽다’가 이루는 척도에서 기준보다 작은 영역으로부터 0(zero)이거나 0(zero)보다 큰 영역 사이에 위치될 수 있고, 기준어구인 ‘우리 학교 교실에서 이 교실을 제외 한 것’은 기준보다 작고 0(zero)보다 큰 영역에 위치될 수 있으며, (23)ㄴ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기준보다 큰 영역에 위치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23)ㄱ은 대략 세 개 이상의 교실이 있는 우리 학교에서, 이 교실이 나머지 교실보다 더 깨끗한데 이 교실은 더러움 전혀 없거나 더러움이 기준보다 작고, 나머지 교실들은 더러움이 있으나 기준보다 작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27)ㄴ은 대략 세 개 이상의 교실이 있는 우리 학교에서, 이 교실이 나머지 교실보다 더 더러운데 이 교실과 나머지 교실들은 더러움 기준보다 크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을 형식화하면 (30)ㄱ과 ㄴ처럼 될 것이고, 일반화하면 (31)ㄱ과 ㄴ처럼 될 것이다.

- (30) ㄱ. [이 교실=우리 학교 교실 ∧ (우리 학교 교실-이 교실) ∈ 우리 학교 교실] ∧ [이 교실의 더러움<sup>15)</sup> < (우리 학교 교실-이 교실)의 더러움] ∧ [0 ≤ 이 교실의 더러움 < 기준 ∧ 0 < (우리 학교 교실-이 교실)의 더러움 < 기준] (단, 우리 학교 교실>두 개의 교실)  
 ㄴ. [이 교실=우리 학교 교실 ∧ (우리 학교 교실-이 교실) ∈ 우리 학교 교실] ∧ [이 교실의 더러움 > (우리 학교 교실-이 교실)의 더러움] ∧ [이 교실의 더러움 < 기준 ∧ (우리 학교 교실-이 교실)의 더러움 < 기준] (단, 우리 학교 교실>두 개의 교실)
- (31) ㄱ. [X ∈ C ∧ Y ∈ C] ∧ [XMD < YMD] ∧ [0 ≤ XMD < N ∧ 0 < YMD < N] (C > 2E)<sup>16)</sup>

15) 비교구문에 사용된 ‘길다’와 ‘짧다’는 비교의 차원을 나타내는 명사인 ‘길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구문에 사용된 ‘깨끗하다’와 ‘더럽다’는 비교의 차원을 나타내는 명사로 ‘깨끗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러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더러움의 차질에 의해서 깨끗할 수도 더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깨끗함’보다 ‘더러움’을 비교의 차원을 나타내는 명사로 사용하였다.

↳.  $[X \in C \wedge Y \in C] \wedge [XMD > YMD] \wedge [XMD < N \wedge YMD < N]$   
 $(C > 2E)$

#### 4. 단항척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

단항척도를 이루는 형용사로 ‘붉다’, ‘푸르다’, ‘누르다’ 등을 들 수 있는데, 다음의 예문 (32)은 이것들 가운데 ‘붉다’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이다.

(32) 이 꽃은 여기 있는 꽃들 중에서 가장 붉다.

단항척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도 앞에서 논의된 최상급 구문과 마찬가지로 지시집합이 셋 이상의 대상물로 이루어지고, 비교어구가 지시집합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어구는 지시집합에서 제외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 보기로 하겠다.

(33) ?이 꽃은 두 송이의 꽃 중에서 가장 붉다.

(34) 이 꽃은 세 송이의 꽃 중에서 가장 붉다.

(33)은 비교할 대상들의 범위, 즉 지시집합을 두 송이의 꽃으로 삼은 경우이고, (34)는 비교할 대상들의 범위, 즉 지시집합을 세 송이의 꽃으로 삼은 경우이다. 여기서 (33)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34)가 자연스러운 것은 제한척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도 앞에서 논의한 다른 유형의 최상급 비교구문과 같이 비교할 대상들의 범위, 즉 지시집합이 셋 이상의 대상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32)의 최상급 비교구문의 지시집합인 ‘여기’에 있는 꽃들’은 세 송이 이상의 꽃이라야 함을 알 수 있다.

(35) ?이 꽃병에 있는 이 꽃은 저 꽃병의 꽃 중에서 가장 붉다.

(36) 이 꽃병에 있는 이 꽃은 이 꽃병과 저 꽃병의 모든 꽃 중에서

16) (35)에서 N은 기준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였다.

가장 붉다.

위의 (35)는 비교어구인 ‘이 꽃’이 지시집합인 ‘저 꽃병의 꽃’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고, (36)은 비교어구인 ‘이 꽃’이 지시집합인 ‘이 꽃병과 저 꽃병의 모든 꽃’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35)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36)이 자연스러운 것은 단항척도 형용사의 최상급 비교구문도 다른 유형의 최상급 비교구문과 마찬가지로 비교어구가 지시집합 속에 포함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32)의 비교어구인 ‘이 꽃’은 지시집합인 ‘여기에 있는 꽃들’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의 비교어구인 ‘이 꽃’은 지시집합인 ‘여기에 있는 꽃들’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다. 만일 ‘여기에 있는 꽃들’이 지시집합이 아니고 기준어구라 한다면, 이 꽃의 깨끗함에 대한 최고성을 확인하는데, 비교어구인 ‘이 학교’와 지시집합 속의 ‘이 교실’를 비교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어구인 ‘이 꽃’과 지시집합 속의 ‘이 꽃’은 붉은 정도가 같기 때문에, ‘이 꽃의 붉음>이 꽃의 붉음’과 같은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36)의 ‘여기에 있는 꽃들’은 지시집합일 뿐 기준어구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기준어구는 ‘여기에 있는 꽃들’에서 비교어구인 ‘이 꽃’이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2)에서 비교어구는 ‘이 꽃’이고 기준어구는 지시집합인 ‘여기에 있는 꽃들’에서 비교어구인 ‘이 꽃’이 제외된 것임을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비교어구와 기준어구가 ‘붉다’가 이루는 척도에서 위치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 (37) ㄱ. 여기에 있는 세 송이의 꽃은 붉은데, 이 꽃은 그 꽃들 중에 가장 붉다.
- ㄴ. ?여기에 있는 있는 세 송이의 꽃은 푸르지만(붉지 않지만), 이 꽃은 그 꽃들 중에 가장 붉다.

위의 (37)은 지시집합이 다른 원구문과 최상급 비교구문 결합한 것이다. (37) ㄱ은 원구문의 서술어가 ‘붉다’이고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도 ‘붉다’

이지만, (37)는 원구문의 서술어가 ‘푸르다(붉지 않다)’이고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가 ‘붉다’이다. 즉, (37)은 원구문과 최상급 구문의 서술어가 같지만 (37)는 원구문의 서술어와 최상급 비교구문의 서술어가 같지 않다. 그런데 (37)은 3.1의 (10)과 는 같이 자연스럽지만, (37)는 (11)이나 는과 달리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다.

‘붉다’와 ‘푸르다’ 등은 특별한 꽃에 대해서 말해질 수 있으나, 모든 꽃에 적용될 수 없다. 어떤 경우에서도 ‘붉음’의 자질을 가지는 꽃을 두고 ‘이 꽃은 붉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꽃은 푸르다’고 할 수 없으며, ‘푸름’의 자질을 가지는 꽃을 두고 ‘이 꽃은 푸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꽃은 붉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붉다’와 ‘푸르다’가 본래적인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므로 상대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붉은 꽃’은 ‘붉은 꽃’ 사이에서 비교가 가능하고 ‘푸른 꽃’은 ‘푸른 꽃’ 사이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37)이 자연스러운 것은 세 송이의 꽃이 모두 붉으며, 이런 붉은 꽃 사이에 최상급 비교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37)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세 송이의 꽃이 모두 푸른데, 이런 푸른 꽃을 두고 붉음을 문제 삼는 최상급 비교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로 (32)의 비교어구인 ‘이 꽃’과 기준어구인 ‘여기에 있는 꽃들에서 이 꽃이 제외된 것’은 모두 ‘붉다’의 영역에 위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붉다’가 이루는 척도는 단항척도<sup>17)</sup>이기 때문에 (32)의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척도의 전 영역에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개방척도 형용사인 ‘붉다’를 서술어로 하는 (32)에서 지시집합은 세 송이 이상의 꽃이어야 하고, 비교어구는 지시집합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어구는 지시집합에서 비교어구가 제외되며, 비교어구와 기준어구는 ‘붉다’가 정의하는 척도에서 모든 영역에 위치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32)는 대략 ‘여기 있는 세 송이 이상의 꽃들 가운데, 이 꽃이 나머지 꽃보다 더 붉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형식화 하면 (38)과 같아질 것이고, 일반화하면 (39)와 같아질 것

17) 단항척도는 한 쌍의 형용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척도가 아니라 하나의 형용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척도이다.

이다.

- (38) [이 꽃∈여기 있는 꽃 ∧ (여기 있는 꽃-이 꽃)∈여기 있는 꽃]  
 $\wedge$  [이 꽃의 붉음>(여기 있는 꽃-이 꽃)의 붉음] (단, 여기 있는 꽃 > 두 송이의 꽃)  
 (39) [ $X \in C \wedge Y \in C$ ]  $\wedge$  [ $X_{MD} > Y_{MD}$ ] ( $C > 2E$ )

#### IV. 마무리

지금까지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고, 비교범위, 즉 지시집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도부사인 ‘가장’이 사용된 최상급 비교구문의 논의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시집합이 제시되어 있고 정도부사 ‘가장’이 사용된 형용사 최상급 비교구문에서, 지시집합은 셋 이상의 비교대상을 필요로 하고, 비교어구가 지시집합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준어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시집합에서 비교어구를 제외시킨 것이다.
2. 개방척도를 이루는 형용사인 ‘크다’와 ‘작다’ 가운데, ‘크다’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인 ‘영수는 우리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는 대략 ‘세 사람 이상이 모인 우리 속에서, 영수가 나머지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크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 하여 [ $X \in C \wedge Y \in C$ ]  $\wedge$  [ $X_{MD} > Y_{MD}$ ] ( $C > 2E$ )처럼 형식화 할 수 있겠다. ‘작다’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인 ‘철수는 우리 중에서 키가 가장 작다.’는 대략 ‘세 사람 이상이 모인 우리 속에서, 철수가 나머지 사람들보다 키가 더 작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 하여 [ $X \in C \wedge Y \in C$ ]  $\wedge$  [ $X_{MD} < Y_{MD}$ ] ( $C > 2E$ )처럼 형식화 할 수 있겠다.

3. 제한척도를 이루는 ‘비다’와 ‘차다’ 가운데, 형용사인 ‘비다’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인 ‘이 병은 이 상자에 있는 병들 중에서 물이 가장 비었다.’는 대략 ‘세 개 이상의 병들이 있는 이 상자에서, 이 병이 나머지 병 보다 물이 더 비었는데, 이 병은 물이 완전히 찬 상태가 아니고, 나머지 병

은 물이 완전히 찬 상태도 빙상태도 아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일반화 하여 '[ $X \in C \wedge Y \in C \wedge [X_{MD} < Y_{MD}] \wedge [0 \leq X_{MD} < 1 \wedge 0 < Y_{MD} < 1]$ ] ( $C > 2E$ )'처럼 형식화 할 수 있다.

4. 비대칭척도를 이루는 형용사인 '깨끗하다'와 '더럽다' 가운데, '깨끗하다'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인 '이 교실은 우리 학교의 교실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대략 세 개 이상의 교실이 있는 우리 학교에서, 이 교실이 나머지 교실보다 더 깨끗한데 이 교실은 더러움 전혀 없거나 더러움이 기준보다 작고, 나머지 교실들은 더러움이 있으나 기준보다 작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 하여 '[ $X \in C \wedge Y \in C \wedge [X_{MD} < Y_{MD}] \wedge [0 \leq X_{MD} < N \wedge 0 < Y_{MD} < N]$ ] ( $C > 2E$ )'처럼 형식화 할 수 있겠다. "더럽다"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인 '이 교실은 우리 학교의 교실 중에서 가장 더럽다.'는 대략 세 개 이상의 교실이 있는 우리 학교에서, 이 교실이 나머지 교실보다 더 더러운데 이 교실과 나머지 교실들은 더러움 기준보다 크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 하여 '[ $X \in C \wedge Y \in C \wedge [X_{MD} > Y_{MD}] \wedge [X_{MD} < N \wedge Y_{MD} < N]$ ] ( $C > 2E$ )'처럼 형식화 할 수 있겠다.

5. 단항척도를 이루는 형용사인 '붉다'를 서술어로 하는 최상급 비교구문인 '이 꽃은 여기 있는 꽃들 중에서 가장 붉다.'는 대략 '여기 있는 세 송이 이상의 꽃들 가운데, 이 꽃이 나머지 꽃보다 더 붉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일반화 하여 '[ $X \in C \wedge Y \in C \wedge [X_{MD} > Y_{MD}]$ ] ( $C > 2E$ )'처럼 형식화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규하(1995), “국어의 비교구문에 관한 역사적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봉모(1990), “국어 견줄말 연구”, 한글 제209호, 한글학회.  
 김승곤(1987), “견줄월 연구”, 한글 제196호, 한글학회.

- 김정대(1993), “한국어 비교구문의 통사론”,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아(1998), 중세국어의 비교구문연구, 태학사.
- 임지룡(1987), “정도 그림씨의 의미대립 특성”, 언어 12권 1호, 한국언어 학회.
- 정인수(1992), “국어 형용사의 의미 분석”, 靑河金炯秀博士華甲紀念論論叢.
- 정인수(1998), “국어 차등 비교 형용사구문의 의미 연구”, 어문학 62집, 한국어문학회.
- 정인수(1999), “국어 동등 비교 형용사구문의 의미 연구”, 현대문법연구 18집, 현대문법학회.
- 하길종(1997), “현대 한국어 비교구문의 의미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rtsch, Renate and Venneman, Theo(1972), Semantic Structures, Frankfurt/Main:Atheäum Verlag.
- Rusiecki, Jan(1985), Adjective and comparison in English, Longman.